

■ 교육

오를 산을 정하고 준비 철저히 해야



즉 내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야 하고, 표준화 시험(SAT/ACT)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한다. 최소 1,400점대 중반까지는 받아야 상위권 주립대학 진학이 수월하다. 보통 주립대학은 내신 성적에서 3.6이상, SAT는 1,200-1,400점대에서 움직인다. 그리고 에세이와 추천서가 필요하다.

아이비리그급 대학에 가려면 그야말로 15개 입학 사정 요소들을 모두 잘 준비해야 한다. 히말라야 고봉을 등반하려는 사람이 2,000-3,000m급 산에 오를 준비를 하고 산에 오를 순 없다.

거꾸로 말하면 2,000-3,000m급 산에 오를 준비밖에 하지 않은 사람은 히말라야 고봉을 오르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굳이 오르기를 고집한다면 결과는 자명하다. 중도 포기. 결국 오를 수 없는 것이다.

대학에 진학하려는 10, 11학년 학생들은 이제 지원할 대학의 목표를 어느 정도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춘 준비를 해야 한다. 자신이 지금까지 목표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를 점검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지금 10, 11학년 학생들이라면 반드시 먼저 목표 대학을 정하고 거기에 맞춰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아직까지 시간은 충분하다.

누구나 '아이비리그' 대학을 꿈꾼다. 꿈을 꾸는 것을 뭐라 할 순 없다. 그리고 꿈이 있어야 도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꿈이 '실현 가능한 꿈'이 아니고 '실현 불가능한 꿈'이라면 '몽상'에 불과하다. 오를 준비 없이 꿈만 꾸다고 고봉에 오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니 불가능하다. 체력도 약하고 등산 장비도 준비하지 않았는데 고봉에 오르겠다고 하는 것은 오만에 불과하다.

사진=shutterstock

대학 준비 과정은 등산의 과정과 비슷하다. 등산을 하려면 가장 먼저 어느 산을 등반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런 다음 오르고자 하는 산이 높은 산인지, 낮은 산인지에 따라 등반 준비를 해야 한다. 낮은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높은 산을 오르려면 거기에 맞게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

특히 히말라야 연봉처럼 해발이 수천 미터를 넘는 산을 오르고자 한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체력 훈련은 물론이고 고산 등반에 필요한 등산 장비들도 빠짐없이 준비해야 한다. 철저한 준비 없이 오르다가는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대학 진학을 두고 생각해 보면 어떤 대학에 진학할 것인지에 따라 필요한 준비가 달라진다. 커뮤니티 컬리지(CC)에 진학하고자 한다면 학교 내신 성적이면 충분하고 SAT-ACT 등 표준화 시험 점수도 필요 없다. 물론 특별활동이나 추천서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러나 명문대에 진학하려고 한다면 말이 달라진다.

'미래교육연구소' (소장 이강렬)에 따르면 미국 대학의 입학 사정 요소는 보통 15가지 정도나 된다. 이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지만 특히 학업적 요소와 에세이, 추천서에 많은 노력과 공을 들여야 한다.

우리 동네 걷기 좋은 곳

Temescal Canyon Trail - Pacific Palisades

바다에서 불과 1마일 정도 거리에 있는 테메스컬 캐년은 수풀이 무성하다. 트레일 헤드(주차장)에서 산을 향해 잠시 올라가면 Temescal Canyon Retreat Center가 있다. 그 수양관을 지나면서 두 갈래 길이 나온다. 원을 그리면서 한 바퀴 돌아 나오는 등산로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오르건 상관없지만 오른 쪽 길을 택한다. 약 1.3마일 지점에 폭포가 있는 계곡이 나오고 작은 다리가 나온다.



다리를 건너 폭포에서 0.4마일 정도 지점에 이르면 또 두 갈래 길이 나온다. 오른쪽 길(Bienvenido)은 약간 오르막길로 2.3마일 가량의 Trail이 계속되고 왼쪽은(Sunset Blvd) 1.8마일인데 내리막이다. 왼편을 택한다. 햇살이 강하

게 내리쬐는 산등성을 잠시 걸어야 한다. 내리막길이 끝날 즈음에 Temescal Canyon Retreat Center가 나타나 트레일이 끝났음을 알려준다. 왕복 3.5마일 정도로 2시간정도 소요된다.



짧은 트레일이지만 하산 길에 태평양을 바라다보는 즐거움이 크다. 아침 일찍 올랐다가 내려와 산타모니카 시내에서 브런치를 즐겨도 좋다.

■ 가는 길: 옐로스카운티에서 5번 North를 타고 가다가 10번 West로 갈아타고 10번이 끝나면서 Pacific Coast Highway와 만난다. PCH North로 잠시 가다가 Temescal Canyon Rd.를 만나 우회전해서 길 따라 잠시 올라가면 주차장이 나온다.



사진=타운뉴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DACA 신규 케이스
상담 접수중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프로디 관련 상담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